

경쟁 /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 경쟁의 두 가지 개념

(1) 가격을 결정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도록 하는 힘(force)을 의미. 물리학에서의 중력(gravity)과 같은 것. 상태(state, situation)가 아닌 과정(process) 으로서의 의미

- 아담 스미스(Smith), 칸티용(Cantillon), 튜고(Turgot), 흄(Hume), 스튜어트(Steuart), 리카도(Rocardo), 밀(Mill) 등은 경쟁을 시장 과정으로 파악

- ‘경쟁하다(to compete)’ 의 동사적 의미

- 본질은 상대방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대항적 행위 - rivalry, emulation

o 하이에크 : “법이 어떤 사물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일련의 행동만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경쟁 개념이 경제 정책에 의미가 있으려면 ‘경쟁하다’라는 동사와 관련되는 상업 행위와 연결되어야 한다”

- 미세스 : biological competition vs. catallactic competition

o 상대방보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행위로 나타남

o 경쟁에서 밀려난 개인은 완패하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으로 이동

o 시장 조정이 효율적 자원배분과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협동으로 나타남

(2) 사물의 특정 상태를 의미

- 경쟁의 최종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꾸르노 이후 경쟁은 ‘상태’ 를 의미하게 됨

- 완전경쟁은 물리학에서의 완전 진공(perfect vacuum) 상태와 유사
  - o 각 기업의 생산물이 산업의 총 생산량에 비해 미미하여 그 생산 여하가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경쟁의 효과가 그 한계에 도달
  - o 매우 많은 수의 판매자가 존재
  - o 판매자가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수평
  - o 경쟁과 시장구조가 연결
  - o 상태로서의 완전경쟁을 하나의 시장 구조로 부각시킨 것은 신고전학과
  - o 쿠르노가 시장구조라는 주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한 바는 없고, 제본스(Jevons)나 에지워드(Edgeworth) 등에 의해 경쟁과 시장 구조가 결합되었으며, 이후 클라크(Clark)와 나이트(Knight) 등에 의해 정치화

## 2. 완전경쟁

- 더 이상 경쟁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 서로 경쟁하는 많은 기업들이 산업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경쟁한 결과,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상태
  - o 특정 상태를 뜻하는 완전경쟁은 ‘경쟁하다’ 를 뜻하는 동사적 의미의 경쟁 개념과 양립할 수 없음.
  - o 가정의 비현실성에 따른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 불가능성도 문제지만 ‘경쟁하다’ 를 뜻하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는 데 그 비판의 핵심이 있음
- 독점적 경쟁과 독점 등도 시장 과정이 아니라 상태나 상황을 의미
  - o 독점은 한 기업을 산업으로 식별함으로써 산업 내 경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
  - o 독점과 경쟁이 서로 반대 개념??
- 독점적 경쟁은 모든 시장에는 경쟁적 요소와 독점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설명하려는 것이지만, 더 이상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 기업이 초과공급을 없애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은 시장과정으로서의 경쟁이지만 완전경쟁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행위.

- 하이에크: “완전경쟁은 경쟁 과정에 의해 결과적으로 도달하거나 가까워지려는 상태에서 경쟁을 논의하므로 경쟁 행위의 범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행위의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림. 경제학자들이 과정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논의하면서 마치 경쟁의 본질과 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믿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에 빠뜨리는 것”
- 특정 시장에서 나타날 상황은 이미 그러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전제하는 가정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 경제 현상의 탐구가 아니라 순수 논리학의 탐구
- 모든 지식이 ‘주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해버림
- 경제학이 순수 논리학이 아닌 사회 과학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신고전학파에서 가정하는 ‘주어진’ 것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함
- 생산자나 소비자는 각각 생산 방법과 수요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가정.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경쟁 행위를 통해서 획득되기 때문에 경쟁 과정 없이 경쟁적 균형 상태에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음.
- 경쟁은 발견적 절차이며, 경쟁을 통한 발견적 절차에 의해 지식을 창출하고 집적하여 경제 활동에 대한 견해를 형성.
- 커즈너: 완전경쟁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며, 다른 참가자가 하는 이외의 다른 더 좋은 방법의 행동을 통하여 더 이상 달성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없는 상태.
-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더 매력적인 기회를 찾을 수 없음
- 기업가의 모든 활동은 경쟁적이며 경쟁적인 활동은 모두 기업가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해받지 않는 경쟁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모든 종류의 시장 활동에 대한 완전한 진입자유

### 3. 경쟁과 재산권, 지식의 문제

- 재산권은 외부효과를 줄이고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태동하고 진화

- 시장 과정으로서의 경쟁은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을 이기려는 행위 →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 따라서 재산권은 경쟁을 있게 하는 핵심적 요소
- 완전경쟁 상태에서 재산권의 의미
  - o 더 이상의 경쟁 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여지가 없음
  - o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쟁을 뒷받침하는 재산권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또 정의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음
  - o 더 이상 경쟁적 주체로서의 기업가가 발견해야 할 새로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경쟁은 존재하지 않음
- ‘주어진’ 이라고 가정하는 사실들은 실제로 발견되어야 할 것들인데, 이는 곧 지식의 문제를 야기하고, 지식의 발견과 소통은 바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짐
- 지식에는 과학적인 것으로서 중앙 집중화가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분산된 특수한 장소와 시간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현장 지식’ 이 있음
  - o 수많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분산된 현장 지식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냐의 문제 대두 :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식의 소통 문제를 해결
  - o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가진 분산된 지식을 사회 전체적으로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 질서인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
  - o 물론 사유 재산권이 있어야 경쟁이 만들어내는 자발적 질서인 시장에서 가격기구를 통해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

#### 4. 공정거래법

- 경쟁 개념은 과정인가 상태인가?
-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무엇인가?

- 거래는 일방적 또는 상호적?
  -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뿐, 어떠한 경쟁 과정을 거쳐 그러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은 없음
  - ‘상태’인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것인가?
- 일정한 거래분야
- 어떤 재화나 용역이 동일한 재화 또는 밀접한 대체재인지를 판별하는 주체는 오직 소비자
  -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형성된 비법률적 장벽이 이른바 시장 구조주의에 입각한 독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쟁에 따른 시장의 조정 과정을 방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도 않으며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
  - 정부의 인위적 진입장벽에 의한 특혜성 독과점이 아닌 자유 시장에서의 독과점화를 우려하는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규정은 의미가 없음
- 실질적인 경쟁 제한
- 자유시장에서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이 모든 사업자들이 그 분야에서 유능하리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
  - 자유(freedom)와 풍요(abundance)를 혼동하지 말아야 - 미인대회, 권투경기
  - 거대 기업을 설립할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업자는, 이미 그러한 기업 규모를 운영·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 거대한 자본 요구량이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된다는 것. 과연 그런가?
  - 누구나 화폐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이러한 자유가 곧 모두가 유능하게 풍요로운 화폐 자본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음
  -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는 더 적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자유를 활용할 수 있을 뿐